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 그대는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 신앙을 청합니다.

† 신앙이 그대에게 무엇을 줍니까?

○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살이에 필요한 은총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본향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삶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신앙인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 자녀로서 당당하고 행복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성당에서만 하느님 자녀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느님 은총을 받아서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길 내지, 적어도 지옥 벌을 면하기 위한 길로 전락하여 세상살이에서 아주 고상한 취미 생활로 변해버렸습니다. “세상을 그럭저럭 살아도 주일은 지키며 사니까, 은총을 몰라도 최소한 벌은 안 받을 거야!” 하느님은 어느덧 우리의 망하지 않는 보함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도 주일미사만 꼬박꼬박 지키기만 해도 ‘열심한 신자’, ‘신앙심 깊은 신자’라고 인정받을 때가 많습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순교자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당당하려고 노력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고, 하느님 나라에 가길 원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했기에 목숨까지 바친 분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미사 중에 순교자들이 장하신 분이라고, 자랑스러운 분들이라고 노래합니다.

“장하다 순교자, 주님의 용사여~~”

‘장하다’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볼 때 나오는 몇 가지 중에 “마음이 흐뭇하고 자랑스럽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 ‘자랑스럽다’는 “남에게 드러내어 뽐낼 만한 데가 있다”라는 의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도 순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 당당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 ‘하느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원을 숨기기보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임을 자랑스러워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피 흘리며 증언한 순교자처럼은 못되더라도 하느님 기준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기에, ‘잘 사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최소한 주변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하느님 자녀’라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상의 교회에서 순교자들은 지상의 교회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눈앞의 것만을 쫓아 살지 말고, 더 높은 곳(하느님 나라)을 보며 나아가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임마누엘)이심을 의심하지 말고 그분 앞에서 더 당당하게 살아달라고.”

“하느님의 자녀라는 신원이 힘들고 무겁겠지만, 자신의 십자가 당당히 짊어지고 살아 마침내 당신들이 있는 생명의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기를.”

오곡백과가 열매를 알차게 영글어 가는 시기에 하느님의 파스한 은총으로 우리의 신앙도 알차고 튼실한 열매를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민 베드로 신부 | 안식년

주일 진레

제 1 독 서

지혜 3,1-9

화 답 송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제 2 독 서

로마 8,31-39

복 음

루카 9,23-26

검손을 배우며 쓴 수필 <어떤 삶의 종언>

김정권 시몬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2019년에 펴낸 3인수필집 『마음은 닳을 내리고』 중 나의 수필 <어떤 삶의 종언> 일부를 소개한다.

“얼마 전 ‘설악산을 사랑했던 인도네시아 영부인 하늘나라로’라는 인터넷 기사가 떴었다. 수필로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의 부인 유도요노 여사가 혈액암으로 별세했다는 것이다. 초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의 딸로서 설악산을 좋아하며 한국어를 구사하는 등 우리나라와는 특별한 인연을 가진 분으로 알려져 있다. 인니는 지난날 내가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했던 나라이기에 내게도 인연이 있다. 기사 말미에 장례식에서 아들이 조문객들에게 한 말이 인상적이다. ‘어머니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다면 어머니를 대신해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어머니는 투병 중에도 가족과 인도네시아 국민만을 계속 생각했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이 끝날 때까지 국민이 행복할 때는 행복했었고 국민이 슬퍼할 때는 슬펐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나는 지체 높은 이슬람 나라의 저명인사인데 가슴에 품은 사랑과 배려는 가히 그리스도적이라는 것에 감동하여 글을 썼다. 어머니 못지않게 그 아들도 참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이며 그것이 다 어머니를 통한 교육이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충분히 뽐낼 수도, 거만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그들의 검손을 우러러보게 했다. 누구에게나 삶의 끝은 있는 법이라 언젠가 내가 삶의 종언을 고할 때 내 아들도 그렇게 말해주면 고맙겠다고 적었다.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하지도 적극적이지도 않았지만 늘 하느님 뜻대로 살려고 나름 애는 썼었다고.”

거의 11년 전이다. 『참 소중한 당신』이라는 가톨릭 신앙 잡지사로부터 원고 청탁 메일을 받았다. ‘공소 앞 마당을 거닐며’라는 코너였는데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마산교구 차례이니 내가 회장을 맡은 수정공소에 관해서 글을 써 달라는 것이었다. 우리 교구에서 발행되는 전화번호부의 공소편에 수정공소가 제일 먼저 등재되어 있으니 아마도 내게 연락한 것 같았다. 우선 전국에 판매되는 잡지에 아마추어보다 못한 내가 이름을 올린다는 게 약간 두렵기도 하고 부담되며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다른 공소에 문의해 보라며 정중히 거절하였었다. 그랬더니 어렵게 생각지 말고 도시의 신자들이 알 수 없는 시골 냄새나는 공소의 애환이 담긴 이야기를 써 주면 된다면서 거듭 요청하기에 뿌리치기가 어려웠다. 그렇게 하여 글을 쓴답시고 억지로 머리를 굴리며 3개월을 연재하였을 무렵 잡지사 편집회의의 결정 사항이라며 1년 동안 연재하라기에, 주제넘지만 요청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본의 아니게 얻은 경험을 통해 2018년에는 교구 가톨릭문인회 회원이 되었고 곧이어 3인3색신앙수필집에 두 번이나 참여하는 기회를 얻었으니 그 옛날 소년 시절 창동에서 ‘문학의 밤’이 열릴 때면 그 행사의 주빈들인 문인들이 참 멋있어 보였고 부러웠었는데, 어느 날 그 문인들의 틈에 반 발자국 정도는 낀 것 같아 작은 소원성취 한 셈이다.

제17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사무처 홍보부(51796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현로 72)
- **마 감:** 9월 27일(수)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레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위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기쁨과 행복 나누는 말씀 잔치에로 초대

〈제12회 교구 성경잔치 궁금해요!〉

11월 19일(주일) 아름답고 평화로운 진전면 새 교구청에서 열리는 제12회 성경잔치에 대해 알아보자.

Q. 성경잔치 내용과 참가를 하려면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 A.** 성경잔치 내용은 공관 복음서이며, “하느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루카 6,6)는 이번 성경잔치의 중심 성경구절이다. 공관 복음서 경시 문제집과 암송카드를 통하여 참가를 원하신 분들은 본당 신청을 통해 함께 준비하게 된다.

성경 경시대회는 성경, 공관 복음서와 예상문제집을 읽고 공부하여 본당에서 선발된 대표 4명이 참가하게 된다. 경시 문제는 성경 본문, 공관 복음서 예상문제집, 은총성경쓰기-〈공관 복음서〉에서 객관식 40문항, 주관식 10문항으로 출제된다. 시험 시간은 50분이다.

성경 암송대회는 본당별 10명 이내로 팀을 구성하여 교구에서 배부한 ‘성경 암송 구절’을 외우도록 한다. 참가 당일에는 오전에 먼저, 암송 대회 담당자가 제시한 스케치북의 문제를 풀어 제출한다. 다음으로는 경시대회에 참가한 각 팀 개인들은 2분 이내에 성경구절 5개를 성경 장, 절을 포함하여 감독관 앞에서 정확히 암송한다. 그리하여 단체 스케치북 문제의 점수와 개인별 암송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6개 팀이 오후의 결승전에 올라가게 된다.

공관 복음서 관련 작품 전시로는 그림, 도자기, 붓글씨, 사진, 꽃꽂이 등. 작품명과 소감을 간략하게 지정된 양식에 작성하여 본당 또는 교구로 제출하면 교구에서는 접수증을 발부한다.

신·구약 성경필사 노트, 은총성경쓰기〈공관 복음서〉 노트도 전시된다. 이번 성경잔치에서는 신·구약 성경필사를 3회 이상 하신 분들의 특별기획 전시가 있다.

작품과 필사노트 전시는 11월 10일(금) 접수하고 다음날부터 19일까지 교구청 본관 홀에 전시된다. 교구에 제출된 것들은 성경잔치 시상식 이후 당일 본인의 접수증을 제시하고 지정 장소에서 찾아간다.

Q. 참가 접수와 당일 행사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 A.** 먼저 본당에서 선발된 경시대회 4명의 참가자와 10명 내의 성경 암송대회 참가자들은 오전 9시 30분까지 접수 데스크에서 자신의 수험표를 발부받는다.

오전 10시 성경 봉헌식과 대회 개회 선언 후 참가자들은 봉사자들의 안내에 따라 각 고사실로 입실한다. 오전 11시부터 성경 경시대회, 암송대회 본선전이 시작된다.

응원하러 오신 분들은 교구청 본관 입구와 경내에 전시된 작품과 신·구약성경필사 노트, 은총성경쓰기 노트를 관람하게 된다. 체험코너에서도 복음사가와 사진을 찍고, 얼굴에 페인팅도 하며 말씀 카드를 뽑아 그림도 그리는 기쁨의 시간을 갖는다. 이 세 코너를 참가하면 먹거리 장터에서 약간의 간식도 제공된다.

점심은 주변의 식당을 이용해도 좋고 본당별로 준비해 온 도시락으로 소풍을 즐긴다. 식사 후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암송대회 결승전이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팀별 릴레이 암송은 주최 측에서 제시한 암송구절들을 각 팀에서 한 장씩 뽑아, 제시한 성경구절을 팀당 2분 동안 릴레이로 암송한다. 패스는 감점이다. 퍼포먼스는 암송구절과 관련된 개사곡, 연극 등 다양하게 3분 이내 암송구절과 상관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무릇 잔치는 참여가 중요하다 했으니 기념품은 당연히 있고, 넓은 교구청 뜰에서의 미사는 기대가 될 것이다. 이어지는 시상식의 경품권 추첨도 잔치를 더 풍요롭게 할 것이다. 성경사목부는 교구민 모두의 축제가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화이팅!

※ 성경잔치에 대한 후원이나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성경사목부 055 · 249 · 7025~6로 연락바랍니다!



마산교구 전사前史 재수록

마산교구 전사前史 23

진주지역 교우촌 (5)

소촌文山에서 사봉을 지나면 반성班城이다. 소재지를 벗어나면 넓은 들을 만나고 그 끝에 발산재가 있다. 옛 이름은 바리고개다. 지형이 바리때(중 밥그릇)처럼 생긴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한문 표기한 것이 발산鉢山이다.

발산재를 넘으면 진전면鎮田面이다. 이곳 어딘가에 양전良田 교우촌이 있었다. 1900년 타케(Taquet, 엄택기) 신부는 자신의 교세 통계표에 양전공소 기록을 남겼다. 당시 신자 수 22명, 외인 영세자 1명, 예비자는 14명으로 보고되어 있다. 1900년 보고서는 1899년 6월에서 1900년 5월까지의 사목활동을 보고한 것이다.

기록을 미루어 보아 이전부터 양전엔 피난 교우들이 살고 있었다. 교우촌이 있었기에 타케 신부도 방문했을 것이다. 타케 신부는 1898년 부산본당 3대 주임으로 부임했다. 1년간 사목하다 서부경남에 본당이 있어야 함을 알고 진주본당 신설을 청했고 뮌텔 주교의 허락이 떨어지자 본인이 부임했다(1899년 6월).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자 다시 마산본당 신설을 청한 뒤 허락을 받고 본당을 옮겼다(1900년 6월). 이렇게 해서 진주와 마산의 첫 본당 신부가 되었다. 당시 28살의 젊은 사제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이유로 타케 신부는 서부경남 지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양전 마을이 속했던 진전면鎮田面은 진주와 마산 사이를 잇는 도로가 지나간다. 타케 신부도 몇 차례 지나갔던 길이다. 발산재 인근에 있었던 양전마을 교우촌을 풍문으로 듣고 있었을 것이다. 양전 교우촌은 지금의 어느 곳에 있었을까?

원래 양전면은 진주군에 속해 있었다. 그러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군면 통폐합으로 진해군鎭海郡의 진서면과 합쳐진다. 진서鎭西와 양전良田이 합쳐 진전이 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해는 지금의 창원시 진해구가 아니고 마산시 진동면 일대를 가리키는 지명이다.

진동鎭東은 진해현鎭海縣 동쪽이란 의미다. 따라서 진동 서쪽에 현이 있었다. 지금의 고현리다. 현이 있었기에 고현古縣이란 지명이 남아 있다. 고려 때는 우산현이라고 했고 조선 때 진해현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진전은 1914년 이후 지명이고 이전엔 진서鎭西였다.

한편 진주군 양전면 봉암鳳巖과 양촌陽村 지역이 진해군 진서면과 통합되어 진전면 소속이 되었다. 따라서 교우촌이 있었던 위치는 지금의 봉암리와 양촌리 일대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봉암 쪽에서 여항산餘航山으로 가는 길은 예전부터 있었다. 고개 몇을 넘으면 함안군이다. 지금은 차도가 트여 있다. 그리고 여항산 함안 쪽 자락엔 피난 교우들이 살았다는 기록이 있다. 조쥬(Jozean, 조득하) 신부의 1891년 교세 통계표에 등장하는 울량공소다.

조쥬 신부는 1890년 부산본당 초대 신부로 부임했는데 첫 공소 방문 때 울량공소를 찾은 것이다. 그만큼 울량엔 교우들이 많았다는 의미다. 아마도 양전과 울량 교우촌은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양전은 진주와 마산의 중간이며 고성, 통영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었다. 울량 교우들은 양전에 들렀다가 떠났을 것이다. 훗날 도시 팽창으로 사람들이 빠져나가자 교우촌은 사라졌을 것이다. 양전과 울량의 공소 위치는 현재 알 수가 없다.

진전면은 진동본당 관할이기에 양전공소는 진동본당 뿌리 중 하나인 썸이다. 양전공소가 등장하는 공적 기록이 1899년이기에 그 기록만으로도 100년이 넘는다. 전해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양전 교우촌엔 순교자도 있었다. 1866년 병인박해 때 진주로 잡혀가 순교하셨다고 한다. 순교자의 시신은 양전 교우들이 모셔와 공소 인근에 모셨다고 한다. 무덤이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기록이나 증언자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

교구 청소년국 2023 교리교안 공모전 수상자 명단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국은 앞으로 해마다 교리교안 공모전을 통해 주일학교 교리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양질의 교안들을 수집, 공유함으로써 교구 청소년 사목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성 바오로 상- 김민정 루시아(월영본당)
- 성 아우구스티노 상- 한현미 미카엘라(평거동본당), 이상화 가브리엘라(옥포본당), 박혜경 베로니카(덕산동본당), 가좌동본당 종교등부 교사회
- 성 토마스 아퀴나스 상- 김소라 미카엘라(옥포본당), 조정아 마리아(금산본당)



공소 순례 소감문

보고, 듣고, 느끼는 공소 순례 23

김소혜 미카엘라(양덕동본당)

양덕동본당 인자하신 모후 레지오 단원들은 함께 공소 순례를 하였습니다. 먼저 함안 구읍공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김동언 신부님 때 움막 한 채를 봉헌 받아 시작한 신앙의 힘은 함안군에 3개의 본당이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칠곡공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깨끗이 정리 정돈된 공소에서 막달레나 자매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으며, 시원한 물도 주시고 공소의 역사를 알려 주셨습니다.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성모상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의령 신반공소를 순례하였으며, 네 번째는 부곡공소를 방문하였습니다. 1980년대 장병화 주교님의 도움으로 부지를 마련한 공소는 국도 확장으로 지금의 공소를 봉헌하였다고 합니다. 성당 수준의 아름다운 공소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산공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장등성당의 소속인 대산공소는 6.25 때 신자들의 피난 생활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공소 신자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굳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공소분들께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공소 순례 24

허미경 글라라(하대동본당)

우리 신앙의 역사는 아프고 슬프다 못해 처참하였습니다. 신앙 선조들은 박해를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 들어갔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신앙심으로 신자 수를 늘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주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여 상리공소에서 첫 기도를 마치고, 연꽃 정원에서 좋은 공기와 바람으로 지금 세대에 누리는 이 행복의 원천이 어디인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풍요로움이 도가 넘치는 지금 이 땅에 피의 순교가 웬 말인가 싶을 정도로 세상은 변해버렸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교회를 떠나 돌아오지 않는 교우들을 생각하며 사랑공소에서 그들의 귀환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어진 배둔공소로 들어섰습니다. 시골의 한적한 공소 분위기와 조금은 다른 새로운 건물의 아담한 성전이었지만, 활기가 느껴졌습니다. 배둔공소에서 기도를 하고 순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교구장 서리 동정

가르멜의 모후 수도회 방문

일시: 9월 19일(화)

수녀연합회 연수 강의·미사

일시: 9월 20일(수)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이주민의날 미사

일시: 9월 24일(주일) 10:00

장소: 창원문성대학교체육관

교구/본당

그라츠자매교구 위원회

일시: 9월 18일(월)~19일(화) 1박 2일

장소: 배론성지

공소회장협의회 모임

일시: 9월 21일(목) 10:30/ 장소: 북천공소

장례지도사 8차 교육

일시: 9월 22일(금)~24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가정성화와 생영수호미사

일시: 9월 24일(주일) 10:30

장소: 영산성당

하반기 교리교사연수(2차)

일시: 9월 24일(주일) 09:30

장소: 교구청

청년신앙강좌

일시: 9월 24일(주일) 13: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체나콜로 다락방 9월 기도모임

일시: 9월 18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2층 성당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버스시간표: 가음자이(10:50)-반송(11:00)-

시티(11:06)-현대주유소(11:16)-

구 교구청(11:40)-교구청(12:10)

문의: 회장 010-9399-5454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공동체미사 시간 변경

영어 미사

창원 주일 15:00/ 창원이주민센터

진주 주일 12:30/ 칠암동성당

거제: 토요일 19:30/ 장평성당

베트남어 미사

창원 주일 17:30/ 명서동성당

진주 주일 12:30/ 칠암동성당

통영: 2, 4주(토) 20:30/ 태평동성당

거제: 1, 3주(토) 19:30/ 국산공소

동티모르 미사

통영: 3주(토) 20:30/ 태평동성당

문의: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도박문제로 힘드십니까?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매(주일) 17:0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010-9992-3443(Mr.정)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중독),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통영시 보건소 옆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1층)

카페: cafe.daum.net/6407795/ 인스타: tygapok

문의: 055-640-7795/ ★일시보호센터 운영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타

마음돌봄 피정

일시: 9월 24일(주일) 13:00~17:00

장소: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부산 본원

대상: 자살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가족들

문의: 010-8811-6187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침과 은총의 시간, 계절마다

제주여행과 성지순례

일시: 10월 12일~14일/ 10월 17일~19일/ 10월 20일~22일/ 10월 24일

~26일/ 10월 29일~31일/ 11월 3일~5일/ 11월 7일~9일/ 11월 11일

~13일/ 11월 17일~19일/ 11월 23일~25일/ 11월 27일~29일

대상: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단체

문의: 02-773-1455, 064-796-4182

늘품직업재활센터 '늘품은견과' 추석 선물기획전

늘품직업재활센터는 창원시에서 위탁받아 사회복지법인 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프리미엄세트: 캐슈넛, 아몬드, 피스타치오, 피칸, 마카다미아, 호두 6통 49,000원/ ▶선물형: 기본세트 1박스+비단보자기 포장 27,000원, 기본세트 2박스+비단보자기 포장 49,000원/ ▶늘품은견과 플러스: 기본세트 1박스+답례품 1통+지퍼가방 30,000원/ ▶늘품은견과 실속형: 기본세트 1박스 22,000원

문의 및 전화 주문: 055-247-5190, 010-2568-5190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9월 18일(월) 19:00	중앙동성당	성령의 충만함인신 성모님	김연준 프란치스코 신부(광주대교구)		010-5247-9900
청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회		최정열 신부 010-4055-5047/ kmsvocation7526@gmail.com		해외 선교 사제를 꿈꾸는 청년

가족사진 전문
지금 여기 사진관
'순간을 기록하면, 추억이 된다'
010-8949-7901
위치: 창원 용지호수 앞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대성의전 경남장묘컨설팅
산소 이장·무연고 처리
010-4848-9944
마산회원구 회성남 18길 2, 1층(회성동)
김종운(클레멘스)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아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마산 성바오로서원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에 있던 성바오로서원이 반송성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많은 이용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473번길 25
문의: 055-248-3089/ 010-9753-3089

고현본당 샛별 Pr. 2,000차 기념 주회



고현본당(주임: 여인석 베드로 신부) 샛별 Pr.(단장: 김미리 미카엘라)은 8월 29일 2,000차 기념 주회를 가졌다. 샛별 Pr.은 1985년에 설립되었으며, 긴 시간 동안 여러 번의 호도 반납을 고민할 만큼 고비가 있었지만, 단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순명의 정신으로 활동을 하여 지금은 12명의 단원이 함께하고 있다. 이날 기념 주회는 본당의 화요일 주회를 하는 7개의 Pr.과 함께 합동 주회를 하였다. 본당 주임 신부는 훈화를 통해 “새벽에 밝은 빛을 내며 반짝이는 별이라는 호칭에 맞도록 모든 곳의 빛으로 활동하라.”라고 전하였다.

서포선교본당 '본당은 우리' 피정 실시



서포선교본당(주임: 임성진 요한 신부)은 9월 3일 '본당은 우리'라는 피정을 실시하였다. 서포선교본당은 2008년 1월 서포공소, 곤양공소, 봉계공소가 모여 교구 두 번째로 선교본당으로 승격되었다. 이번 피정은 마산교구 ME 협의회의 도움으로 진행되었으며, 본당 전 신자의 70%에 달하는 63명이 참석하여 함께하였다. 본당 신자들은 이날 복음에서처럼 하느님의 뜻에 걸림돌이 된 베드로 사도가 아니라 서로의 힘을 북돋아 주는 디딤돌이 되고, 노력하는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다짐하였다.

산호동본당 창조주의 모후 Pr. 2,000차 기념 주회



산호동본당(주임: 김용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창조주의 모후 Pr.(단장: 서정임 엘리사벳)은 8월 23일 2,000차 기념 주회를 가졌다. 창조주의 모후 Pr.은 1984년 9월 18일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8명의 여성 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기념 주회에는 본당 사제, 수도자 및 본당 레지오 단원들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와 기쁨을 나누었다.

교구 꾸르실료 제19차 전국 울뜨레야 참석

교구 꾸르실료 사무국(담당: 신명균 마르티노 신부, 주간: 최정이 테레사)은 9월 2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9차 전국 울뜨레야에 참석하였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이사 49,15)라는 말씀 아래 전국 15개 교구 약 6,500여 명이 참석한 울뜨레야에 우리 교구는 152명의 꾸르실리스따가 참가하여 이상, 순종, 사랑의 정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동화同化에서 다문화多文化로, 다문화에서 상호문화相互文化로...

윤종두 요한 신부/ 교구 이주사목센터장

“한국어를 못하니까 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왕따를 당했어요! 힘들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필리핀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새로운 언어, 새로운 문화를 모두 적응해야만 하는 현실에서 입국 두 달 만에 들어간 학교는 0점짜리 성적표로 나를 부끄럽게 했고, 한국어가 서툴러 실수하여 오해를 살까 봐 말을 아껴야 했으며, 미래를 향한 꿈도 꿀 수 없었던 곳이었어요! 힘들었어요!”

이 두 증언은 나의 눈에서 제어할 수 없는 눈물을 흐르게 하였으며, 아직도 내 머릿속에서 메아리치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센터의 이주배경 청년들의 목소리이다.

지난 8월 27일~28일까지 ‘보이지 않는 재단’ ‘백만클럽’ ‘창원이주민센터’가 공동 주관하여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이주민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청년 토론회를 가졌다. 전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을 쏟아내고 있는 ‘젊음이 가득한 전문가young professional’ 17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창원이주민센터의 베트남 출신 청년 2명과 필리핀 출신 청년 3명도 함께했다. 참석자들 모두가 행복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평등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지향하고, 더 이상 단일민족이라는 민족주의적인 세상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며 서로의 차이가 강점이 되어주는 ‘상호문화주의’의 대한민국을 꿈꾸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의 세상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주민과 함께하는 세상’은 서로의 삶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하며 온전함을 지향하는 ‘시노달리타스’라는 교회의 존재 본질이며, 존재 방식의 하나의 적극적 표현이라고 토론회를 통해서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 나는 다양함이 함께하는 시간, 특별히 이주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동화주의assimilation-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의 3단계로 나누어 이해해 보고 싶다.

첫째로, 동화assimilation의 단계인데, 아주 간단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모양새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는 명제처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이주민들이 정주민인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전적으로 수용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인가? 태어나서 익힌 언어와 문화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

나 좋을까? 우리는 이것이 힘들음을 안다. 죽어라고 학교에서 영어를 배워도 미국인 앞에 서면 긴장하고, 어학연수를 다녀와도 여전히 영어점수를 만들어 내는 것에 힘들어하지 않는가? 여성이 결혼을 하면 일방적으로 시댁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함을 강요받았던 우리 사회의 과거에 시댁의 이주민이었던 우리의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해외여행을 가면 항상 고추장을 들고 다녀야 하고, 김치가 있어야 밥을 먹은 것 같은 우리는, 다른 세상의 언어와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어려운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족이다. 우리 가톨릭교회만 해도 그렇다. 해외에 이주한 신자들이 한 인성당을 짓고 국내에서 교포들의 모국어 서비스를 위하여 사제를 파견하지 않는가? 다른 세상과 더 많은 이질감을 지닌 우리가 이주민들을 향하여 ‘동화: 일방적 수용’을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감히 생각해 본다. 일방적인 ‘동화’에 대한 강요는 수용해야만 하는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남겨왔고, 동화가 정답이 아님을 경험했다.

이 단계를 지나면 ‘다문화주의’로 건너간다. 이주민의 숫자가 늘어나서 더 이상 동화와 수용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면,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지닌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시간이 도래하는 것이다. 동화를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다름을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이다. 동화보다는 긍정적이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라는 단어는 부정적이다. 주류사회에 동참하지 못하고,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공존하는 상태로 보인다. 많은 집단에서, 특히 학교 집단에서 ‘다문화’라는 단어는 ‘어딘가 어수룩한 상태에 있는’ 혹은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형용사로 사용되어 집단 따돌림을 할 때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한다. 실제로, 이주배경을 지닌 학생이 아닌데도 무엇인가 어설픔게 말하고 행동하면, “너, 다문화야?!”라고 학생들이 놀린다고 한다.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현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우리 것이 최고라는 자긍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문화를 폄하하는 것은 성숙되지 않은 모습이다.

마지막 단계가 ‘상호문화주의’인데 서로의 문화가 만나서, 서로의 다름에 대해 인정하며 좋은 것을 서로 나누고 경청하여 서로가 더욱 풍성해지는 단계이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단계라 생각한다. 학교에서는 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상호문화 교육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의 이유로 이주민이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가는 이 시점에, 우리의 젊은이들은 다른 문화배경의 많은 이주민들과 공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자명하기에, 서로 공생하기 위해서 잘 준비해야 한다. 더 이상 ‘동화’와 ‘다문화’ 주의에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우리 가톨릭교회는 ‘상호문화주의’로 우리 곁에 있는 이주민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환대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는 모든 이를 향하여 활짝 열려있는 문이다!